

<p>민 지 실</p> <p>음 혜 천</p>	<h1>BUDDHANARA</h1>	<p>FAITH WISDOM ACTION</p>
---	---------------------	------------------------------------

우리는 부처님 제자들이다. 스스로 타오르며 佛性을 밝힌다.

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 법회

첫째주, 셋째주 일요일: 정기 법회
 첫째주 일요일 11시 가을 야외법회: Eckert's Farm (10월), 초하루 인등기도 법회 (11월)
 셋째주 일요일 11시 : 전법기도법회, 교리탐구
 매주 둘째주 화요일 5시: 어린이 참선 법회



조지아주 애틀랜타 법회

10월 둘째주 일요일: 가을 야외법회 (10시에 제주시우나 주차장에서 만나서 공원으로 출발)
 Fort Yargo State Park
 11월 둘째주 일요일: 정기법회 오전 11시-오후 1시
 Pinckneyvill Park 에 있는 Pinckneyville Community Center. Room #5

새벽기도: 아침 6시 30분-7시 (아침예불 및 참선)
 (새벽기도 참석하신 분들에게는 사찰에서 아침공양을 제공 합니다.)

부다나라 (불국사) 후원회 (불국회)

-법회는 한국에서 매달 있습니다. 한국에 계시면서 후원회 법회 참가를 희망하시는 불자들은 미국 세인트루이스에 있는 불국사나 한국에 있는 불국회 사무실로 연락 바랍니다.

부처님 제자들의 참선 모임

- Buddha's Disciples Zen Meeting -
 Every Saturday 9am. (매주 토요일 9시)
 Program: Sitting & Walking Meditation, Da-do (Tea Ceremony)

이달의 법구경

잘못 이은 지붕 비 새듯이
 허술한 마음 틈 타 스며든다네.
 잘 이은 지붕
 비가 새지 않듯이.
 잘 지킨 마음
 번뇌 스며들지 못하네.

Even as rain breaks through an ill-thatched house, passions will break through an ill-guarded mind.
 But even as rain breaks not through a well-thatched house, passions break not through a well-guarded mind.

내 생명 부처님 무량공덕 생명 용맹정진하여 불국정토 성취한다.

불국사 (Buddhanara Temple)

www.buddhanara.net

874 Berick Dr. St. Louis, MO 63132

☎ (314) 993-0185; 239-9068

2010 년은 부처님 말씀을 이웃들에게 전하는 “전법의 해”가 되도록 힘씁니다.

천수경은 어떤 경전인가? (요약)

11 월부터 애틀랜타 부다나라 정기 법회에서는 한국 불교에서 가장 많이 독송되고 친숙한 경전중 하나인 “천수경”을 강의 합니다. 이번 기회에 다같이 천수경이 어떤 경전이고 어떤 배경과 역사속에서 한국에서 만들어지고 독송되게 되었는지 알아가시는 소중한 기회가 되셨으면 합니다.

'초발심자경문'에 보면 "경전을 독송할 때는 그 뜻을 마음속에 깊이 생각하되 단지 소리만 따라 외우지 말라"고 했습니다. 물론 '천수경'은 그 핵심이 진언이기 때문에 독송 그 자체에 의미가 있다고 볼 수 도 있습니다. 그러나 경전을 독송하는 기본은 부처님의 말씀을 암송할 정도로 몸에 익혀서 그 가르침을 생활 속에 구현하는데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아무 뜻도 모르고 경전을 읽는다는 것은 마치 한쪽 날개가 없는 새와 같은 것입니다.

1. 가장 한국적인 경전

- 1) '천수경(千手經)'은 한국불교의 역사적 특징과 철학적 우수성을 잘 보여주는 경전입니다.
- 2) '천수경'은 우리 조상들이 편집한 우리 나라 고유의 경전으로 한국불교의 독자성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 3) '천수경'은 우리 민중의 애환과 고난을 함께 해 왔으며 지난한 우리민족의 역사를 통해 민족의식 속에 깊이 내면화된 경전입니다.
- 4) '천수경'은 현재에도 가장 많이 읽고 외우는 경전의 하나로 사찰에서 행하는 의식이나 법회 때에는 반드시 독송하는 기본 경전입니다.
- 5) '천수경'은 단순히 복을 빌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사회 윤리적 실천의식을 담고 있습니다.

2. '천수경'의 편찬 과정

㉠ 천수경의 핵심

'천수경'은 밀교계통의 경전으로 그 핵심은 다라니(Dharani)입니다. 바로 이 다라니가 등장하는 부분을 살펴보면 '천수경'이 편찬되는 과정을 알 수 있습니다.

㉡ 천수 다라니가 등장하는 초기문헌

신라의 의상스님이 지은 [백화도량 발원문]에는 다음과 같은 구절이 나오고 있습니다.

"은 누리 일체중생들이 대비주(大悲呪)를 독송하고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염하여 원통삼매에 다같이 들기를..."

또 [삼국유사]의 '대산오만진신조(臺山五萬眞身條)'에 보면 '천수주(千手呪)'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상의 문헌들을 볼 때 천수주는 이미 삼국시대부터 널리 독송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 공식적인 '천수경'의 편찬

천수주는 비록 신라시대부터 등장하고 있지만 오늘날 우리가 독송하고 있는 것과 유사한 형식의 '천수경'은 조선시대에 편찬됐습니다. 조선 성종 7년(1476)에 최초로 [천수천안광대원만무애대비심대다라니경]이 간행되어 오늘날 독송하는 '천수경'의 모체가 되고 있습니다.

㉣ 집단 편찬의 산물

서산스님(1520~1604) 이후 조선 중기로 접어들면서 불교계에서는 진언집, 의식집 등의 편집이 활발해 집니다. 이같은 분위기에 힘입어 '천수경'도 집단 편찬 과정을 거쳐서 오늘날 우리가 독송하는 '천수경'으로 탄생하게 됐습니다. '천수경'은 이처럼 한 사람에 의해 편찬된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에 의해 집단 편찬 과정을 거치면서 민족적 성격이 강하게 가미되었습니다.

3. '천수경'의 전체적 구조

분류(十門)	천수경의 내용
1. 개경(開經)	정구업진언 ~ 개법장진언
2. 계청(啓請)	천수천안 ~ 소원중심실원만
3. 별원(別願)	나무대비관세음 ~ 자득대지혜
4. 별귀의, 소청(別歸依, 召請)	나무관세음 ~ 아미나불
5. 다라니(陀羅尼)	신묘장구대다라니...

6. 찬탄(讚歎)	사방찬, 도량찬
7. 참회(懺悔)	참회계 ~ 참회진언
8. 준제주(准提呪)	준제공덕취 ~ 원공중생성불도
9. 총원(總願)	여래십대 발원문. 사홍서원
10. 총귀의 (總歸依)	삼귀의

4. '천수경'의 구조에서 보이는 특징

㉠ 별원(別願)과 총원(總願)

'천수경'에는 별원과 총원이라는 개념이 등장합니다. 별원은 개별적이고 특수한 것을 말하고 총원은 전체적이고 보편적인 것을 말합니다. 또 총귀의는 삼보에 대한 전체적 귀의를 의미하는 것이며 별귀의는 관세음보살을 중심으로 보살 한 분 한 분에 대한 개별적 귀의를 뜻하는 것입니다.

㉡ 별원(別願)에서 총원(總願)으로

'천수경'은 전체적인 구조에서 보이듯이 개별적인 소원의 성취를 비는 별원에서 전체적이고 보편적인 발원인 총원으로 발전해 가고 있습니다. 이는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신앙에서 출발해서 보다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신앙으로 승화되어 가는 구조입니다.

㉢ '천수경'의 중심은 다라니

'천수경'은 다라니(Dharani)를 중심축으로 내용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신묘장구대다라니를 중심으로 해서 그 앞 뒤로 '천수경'의 내용들이 배열되고 있습니다.

㉣ 육행(六行)의 구조

'천수경'의 핵심은 물론 다라니입니다. 그러나 '천수경'은 단순히 다라니만을 지송하는 차원을 넘어 대승불교의 기본적 수행인 육행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육행이란 대승불교의 여섯 가지 실천으로 기도, 발원, 귀의, 송주, 찬탄, 참회를 말합니다.

㉤ 오문(五門)의 구조

'천수경'은 또한 다섯 가지 실천문을 모두 구축하고 있습니다. 오문이란 예경문, 공양문, 참회문, 발원문, 지송문을 말합니다.

5. 관세음보살님의 경전

㉠ 천수천안

'천수경'의 천수(千手)는 천수천안(千手千眼)의 약칭입니다. 즉 천개의 손과 천개의 눈을 갖고 계신 관세음보살님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관세음보살님은 천의 눈으로 중생들의 아픔을 보시고 천의 손으로 중생들의 아픔을 어루만져 주시고 마침내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주시는 자비의 어머니입니다. '천수경'은 바로 자비의 어머니인 관세음보살(Avalokitesvara)이 말씀하시는 경전이며, 관세음보살을 말하는 경전이며, 관세음보살에게 말하는 경전입니다.

㉡ 보문시현

흔히 석가모니불을 '사생의 자비로운 아버지(四生慈父)'로 표현하는데 반해 관세음보살님은 자비로운 어머니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관세음보살 보문품'에는 관세음보살님을 서른 두 가지의 모습으로 나타내는 '32 응신(應身)'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중생의 근기에 따라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내기 때문에 '보문시현(普門示現)'이며 어떤 특정한 성(性)을 초월하고 있습니다.

㉢ 자비로운 어머니

관세음보살님은 중생이 처한 상황에 따라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내기 때문에 성을 초월하고 있지만 일반적으로 어머니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버지보다 어머니에 대한 이미지가 자비심을 표현하기에 더욱 호소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관세음보살님은 "중생을 마치 어머니가 강보에 싸인 갓난 자식을 돌보듯 연민한다(哀憫衆生如赤子)"라고 말합니다.

㉣ 관세음과 관자재

관세음(觀世音)보살은 산스크리트어 Avalokitesvara 의 한역입니다. 이 말은 관자재(觀自在), 광세음(光世音), 관세자재(觀世自在), 관세음자재(觀世音自在) 등으로 번역됩니다. 구마라습이 번역한 구역에서는 '관세음(觀世音)보살'로 번역되었지만 현장스님이 번역한 신역에서는 '관자재(觀自在)보살'로 번역되고 있습니다.

이 두 번역은 지금도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독송하는 반야심경은 현장스님이 번역한 신역본이기 때문에 '관자재보살'로 불립니다. 그렇지만 천수경에서는 구마라습 삼장이 번역한 관세음보살로 불리고 있습니다.

관자재(觀自在)란 '보는데 자유롭다'는 뜻이고 관세음(觀世音)은 '세상의 소리를 본다'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번역 가운데 세상의 소리 즉, 구원을 바라는 중생의 소리를 어느 곳, 어느 때고 자유롭게 본다는 뜻을 가진 구마라습 삼장의 번역이 의미상으로는 더 이해가 쉬운 번역이라 할 것입니다.

㊤ 관세음보살의 위신력

관세음 보살은 중생의 근기에 따라 32 응신(應身)으로 나투시며 그 모습에서 자유롭습니다. 또 중생들로 하여금 두려움을 없애주는 14 가지의 힘(十四無畏力)을 가지고 계시며 네 가지의 불가사의한 덕(四不思議德)을 갖추고 계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세에는 이같은神通력(神通力)과 위신력(威神力)으로 중생들을 보살피시고 사후에는 아미타불이 계신 서방정토 극락세계로 중생을 인도하시는 보살입니다. 이같은 관세음 보살님의 위신력은 다음과 같이 찬탄되고 있습니다.

觀音妙智力 관음보살의 오묘한神通력은
能救世間苦 능히 세상의 고통에서 구하시네.
具足神通力神通력을 두루 갖추시고
廣修智方便 지혜의 방편을 널리 닦아
無刹不現身 이 세상 어디라도 나투시지 않는 데가 없네.

종단소식: “종단 정체성 갖고 기능해야”

한국불교 세계화의 교두보가 될 해외교구 설립과 관련 현지 스님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지난 9월 14일부터 24일까지 미국을 순방한 총무원장 자승스님과 조계종 대표단은 뉴욕과 LA에서 ‘해외특별교구 설립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총무원장 스님, 해외특별교구 총책특보 무애스님, 총무원 사회부장 혜경스님이 참석해 현지 스님들의 의견을 들었다. 또한 종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해외교구 설립과 관련된 입장을 설명했다.

총무원장 종민스님의 사회로 진행된 간담회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았다.

해외특별교구 설립을 위한 간담회는 지난 9월 15일 LA 고려사 대웅전에서, 9월 18일 뉴저지 메리어트호텔 회의실에서 진행됐다. LA 간담회에는 11명, 뉴욕 간담회에는 9명의 현지 스님이 참석해 한국불교 세계화 방안에 대해 진지하게 의견을 내놓았다. 본격적인 간담회에 앞서 총무원이 준비한 해외포교 현황과 해외교구 설립 방안에 대한 설명이 진행됐다.

뉴욕 간담회에서 불광선원 주지 휘광스님은 “현지 법인으로 설립한 미국 사찰의 경우 정관의 내용이 가장 중요하다”면서 “종단 정체성을 유지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조계종 사찰로 기능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휘광스님은 “불광선원의 경우 정관 제 1 조에 사찰 주지와 부주지는 조계종 스님이 맡도록 분명하게 규정했다”면서 “이사회에도 조계종 스님이 참여하도록 명문화 했다”고 설명했다. 휘광스님은 “종단차원에서 추진하는 해외교구청(해외특별교구) 설립을 지지한다”며 “한국불교 세계화의 단초가 될 것”이라고 기대를 나타냈다. 보리사 주지 원영스님은 “미국에서 사찰을 창건한 스님이 갑자기 입적할 경우를 대비해 후계자를 양성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원영스님은 스님들의 활동을 보좌할 포교사를 종단차원에서 양성해야 하고, 본사 지원을 받아 건립된 사찰을 해외특별교구로 등록할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원적사 주지 청원스님은 “종단차원에서 지원을 할 경우, 개별 사찰보다는 예를 들어 ‘뉴욕의 불교공동행사’를 지원하는 것이 불교를 알리고, 불자들이 늘게 하는 방법”이라면서 “유능한 인력 확보를 위해 종단차원에서 유학승에 대한 지원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앞서 9월 15일 진행된 LA 간담회도 다양한 의견이 쏟아져 나왔다. 반야사 주지 현철스님은 “종단에서 추진하는 방향에 뜻을 같이 한다”면서 “창건주 스님들이 입적하고 난후 사찰이 매매되는 문제가 있다”며 현지 포교의 어려움을 호소했다. 현철스님은 “종단 정체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현지 사찰의) 정관을 만드는 게 필요하다”면서 “해외교구를 조속히 설립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관음사 주지 도현스님은 “해외교구가 한국불교를 세계화하는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면서 “외국인 스님을 배출하는 부분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효과를 높일 수 있다”고 제안했다. 이어 도현스님은 “현지 한국사찰을 창건하는데 지역이 중복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면서 “미국뿐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유럽과 아프리카에도 해외교구가 설립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고려사 주지 범경스님은 “현지 사찰의 매매를 방지하기 위해 재산 등기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면서 “해외교구는 총무원에 두고, 미국의 경우 서부·동부·중부대평양에 각각 지부 사무실을 개설하는 방안이 좋겠다”고 제안했다. 또한 범경스님은 “분담금의 경우 현지 포교를 위해 부처님오신날 봉축행사 등 연합 행사에 사용하도록 하자”고 말했다.

범휴스님은 “총무원 차원에서 미국 현지에 거주하는 스님들을 대상으로 연수를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면서 “5년 또는 10년 이상 현지에서 활동하고 있는 조계종 스님들을 대상으로 종단 차원의 연수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해외포교의 대상을 우선 교민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LA 간담회에는 법왕사 주지 현일스님, 태고사 주지 혜안스님, 선각사 주지 선학스님, 영화사 주지 동진스님,

보리사 주지 형전스님, 태고종 해외특별교구장 종매스님 등이 참석했다. 뉴욕과 LA 에서 현지 스님들의 의견을 청취한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스님들의 좋은 의견을 잘 들었다. 종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해외특별교구 설립에 참조하겠다”면서 “종단에서 관련 법령을 만드는 과정에도 현지 스님들의 의견을 듣고 자문을 구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총무원장 스님은 “해외특별교구 설립은 제 33 대 총무원의 핵심과제에 들어 있는 중책”이라면서 몇 가지 복안을 설명했다.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해외교구 설립을 통제나 관리의 개념으로 받아들여선 안 된다”면서 “종단 차원의 ‘서비스’ 개념으로 받아들여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해외특별교구장이나 사무소장은 해당 지역에서 뽑아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총무원장 스님은 “여건이 어려운 외국에서 조계종 스님들이 자생적 방목적으로 포교를 해온 것이 사실”이라면서 “종단에서 관리하지 못하고 챙기지 못한 것은 종단의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조계종 브랜드’를 갖고 반세기 가까이 미국 포교를 해온 사실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총무원장 스님은 “한국에는 ‘짜퉁 조계종’이 30 여개가 넘는다”면서 “조계종 브랜드 속에서 스님들이 덕을 보고 있다는 것을 무시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스님은 “몇 가지 안을 만들어 검토한 후 해외특별교구를 설립하고, 종단에서 직접 관리할 방침”이라면서 “최종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현지 스님들의 정서를 최대한 수용하겠다”고 말했다.

해외특별교구 총책특보 무애스님은 “두차례의 간담회를 통해 대표소 설치와 재원 문제 등 해외포교 활성화 방안을 찾을 수 있었다”면서 “간담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종합해 해외포교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경우 한국불교 세계화의 초석을 놓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나타냈다.

총무원은 지난 9월 30일 ‘한국불교 세계화를 위한 조계종 대표단’의 방미 결과를 설명하는 간담회에서 “2011년 3월 또는 11월에 중앙총회에서 입법화 과정을 진행할 것”이라면서 ‘해의 지역별 대표 사무소 설립’ 추진 방침을 비추었다. 총무원은 이날 △해외사찰 표준정관과 미등록 사찰의 종단등록 방안 마련 △해외교구 본사주지는 현지사찰 주지스님 가운데 선출하여 임명 △해외교구는 행정적인 서비스와 교육,포교를 지원하는 기능 우선 △신도등록, 신도증 발급, 국가별 대표사무소 운영, 교포 2~3세 교육 방안 마련 등 ‘한국불교 세계화 방안’을 밝혔다.

“출가의 길 안내해드립니다”

조계종 첫 출가사이트 개설...“상담으로 궁금증 해결”

많은 사람이 궁금해 하지만 그 속내를 들여다보기 쉽지 않았던 ‘출가의 길’을 안내해주는 사이트가 개설됐다. 조계종 교육원(원장 현웅)은 9월 30일 오전 9시 종단 사상 첫 출가사이트(monk.buddhism.or.kr)를 개설한다. 교육원은 29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품성과 자질이 뛰어난 인재들이 출가라는 큰 발심을 일으킬 수 있도록 안내하기 위해 사이트를 개설하게 됐다”며 “출가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출가가 삶의 희망이 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는데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사이버상담 통해 궁금증 해소

‘출가, 자유를 향한 자유로운 날갯짓’이라는 부제의 이 사이트는 △출가의 길 △출가영상 △출가 Q&A △열린마당으로 크게 나뉜다.

‘출가의 길’에서는 도법스님(인드라마생명공동체 상임대표)과 정목스님(불교방송 진행자)이 직접 쓴 출가를 원하는 글, 법정스님의 수필집에서 가려 뽑은 출가 관련 에세이를 볼 수 있다. 또 교육·문화·포교·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출가자들의 삶을 그린 짧은 글과 그림도 담았다.

‘출가영상’에서는 조계종이 자체 제작한 4분 내외의 동영상 2편과 1999년 조계종 행자교육원의 24일간을 촬영한 다큐멘터리 ‘행자 계를 받다’와 당시 출가자들의 10년 후 모습을 추적한 ‘출가 그 후 10년’을 실었다. 두 프로그램 모두 MBC에서 방영돼 큰 인기를 끌었던 프로그램이다.

‘출가 Q&A’는 교육원이 이번 출가사이트의 가장 큰 특징으로 꼽는 코너다. 출가를 고민하는 사람들이 흔히 가질 수 있는 의문을 문답형식으로 정리했고, 더 깊은 고민은 사이버상담을 통해 풀 수 있도록 했다. 인터넷 포털사이트나 카페 등에 출가에 관한 많은 정보가 게재되어 있지만, 출가사이트를 통해 종단의 책임 있는 답변과 개인별 맞춤형 상담이 가능토록 한 것이다.

출가 후 교육과정 소개-전문 상담사 배치 필요

종단 첫 출가사이트라는 의미에도 불구하고 보완되어야 할 점도 눈에 띈다. 우선 출가 이후의 행자생활과 교육과정, 수계절차 등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다. 구체적인 궁금증은 사이버상담에서 풀 수도 있지만, 인터넷 사이트 검색을 통해 쉽게 얻을 수 있는 기본정보조차 제공하지 않는 점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사이버상담을 어떻게 이끌어 가느냐도 출가사이트 성패의 가늠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사이버상담은 종단 교역직 스님들과 전문 상담가 스님들이 맡아 진행한다는 방침이지만, 교육원 교역직 스님들 외에는 아직 상담가가 선정되지

않았다. 상담코너가 네티즌들에게 호응을 얻기 위해서는 전문가들의 깊이 있는 ‘실시간 상담’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해 김성동 교육원 연수팀장은 “앞으로 사이트 운영전담자를 배치하고 상담기능을 상설화함으로써 지속적인 업데이트가 가능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부처님, 적멸의 스승이자 길잡이

■ 스승은 ‘바람 풍’해야 한다

시행착오에 대한 자기반성, 성찰 없이 흉내만 내는 종교인들 항상 주의해야

아주 명망 있는 가문의 젊은이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평소 배에 관심이 많았고 특히 항해술에 대해서 아주 해박했습니다. 당시에는 다른 나라와 장사를 하려면 여러 상인들이 돈을 모아 배를 세내어 항해에 나서야 했습니다. 그래서 상인들은 항해술에 해박한 젊은이를 눈여겨보아두었습니다.

마침내 출항할 때가 되자 상인들은 이 젊은이를 배에 태웠습니다. 선장이 있기는 하였지만 탄탄한 이론으로 중무장한 젊은이가 있다면 그 어떤 재난을 당해도 끄떡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다로 나아간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선장이 죽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은 놀라고 당황했지만 항해술에 해박한 젊은이가 있다는 사실에 안도했습니다. 그들은 젊은이에게 키를 맡겼습니다. 그러자 젊은이가 말했습니다.

“아니오. 키는 당신들이 잡으십시오. 나는 지시를 내리겠습니다.”

순풍의 바닷길에서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조류가 바뀌는 곳으로 들어서자 문제가 달라졌습니다. 배가 방향을 잃고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젊은이의 입을 쳐다보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알고 있는 모든 지식들을 기억해내며 외쳤습니다.

“키를 이렇게 잡으시오. 뱃머리를 저쪽으로 돌리시오.”

상인들은 젊은이의 말을 듣고 열심히 키를 잡고 노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배는 그 자리에서 빙빙 돌기만 할 뿐 조금도 나아가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다 중심을 잃은 배가 기울어졌고, 상인들은 결국 목적지에 도착하지도 못한 채 불귀의 객이 되고 말았습니다. (백유경 66 번째 이야기)

누군가의 길잡이가 된다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목적지에 무사히 도착하는 방법에 해박해야 할 뿐만 아니라 도착할 때까지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상황에 대한 ‘경우의 수’까지도 완벽하게 알아야 합니다.

다른 지도자에게는 없는, 붓다만의 능력이라고 하는 18 불공법(不共法)에는 모든 것을 환히 안다는 확신, 모든 번뇌를 완전히 다하였다는 확신, 그리고 수행에 장애가 되는 것을 해박하게 설명할 수 있다는 확신, 괴로움을 없애는 방법을 설명할 수 있는 확신이라는 ‘네 가지 확신(四無所畏)’이 있습니다.

수행에 장애가 되는 것까지도 완벽하게 알고 있다는 것은, ‘어떻게 하면 번뇌를 없앨 수 있지?’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뿐만 아니라 ‘왜 번뇌가 생기지?’ ‘매뉴얼대로 해봤는데 왜 작동이 안 되는 거지?’에 대한 대답도 갖고 있다는 말이 될 것입니다. 그만큼 시행착오를 누구보다 많이 하였고, 그때마다 자기반성과 함께 깊은 성찰과 모색이 뒤따랐을 것입니다.

종교적 차원에서의 기도나 수행은 그때그때 눈앞에서 현실적인 손익이 드러나지 않기에 사람들은 그 단체를 이끌고 가는 사람을 절대적으로 믿어서 자신의 전 재산을 희사하고 일생을 걸고 그를 따라 수행하며 심지어 자신의 내세까지도 의지합니다. 그런 까닭에 신앙은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기도 하지만 자칫 하다가는 멀쩡한 사람을 폐인으로 만들고 가정을 파탄내고 사회를 어지럽히기도 합니다.

몇 권의 경서를 읽고, 대충 수행의 흉내를 낸 뒤에 사람들 앞에 서서 ‘나를 따르라’고 외치는 종교인들이 종종 있습니다. 입으로는 항해술을 줄줄 꿰고 있었지만 정작 실전에 임해서는 모든 사람들을 황천길로 몰고 간 젊은이도 그런 부류입니다.

“설마 그런 일이 벌어질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

이런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사람들의 안전을 책임지는 길잡이의 입에서는 나오면 안 되는 말입니다. 특히 수행단체를 이끌고 있는 사람에게는 더욱 그러합니다.

사람들이야 “모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는 심정으로 따르겠지만 그들을 이끄는 사람이 “나는 바람풍 해도 너는 바람풍 해라”는 식이면 정말 곤란하겠습니까. 그 죄를 어떻게 갚으려고요.

불교신문에서 발췌: 이미령 / 동국역경원 역경위원

“나 너 싫어” 비수같은 한마디, 실제로 심장 죽인다

사랑하는 연인에게 차였을 때 심장이 멎는 것 같은 경험을 한 적이 있을 것이다. 그럴 때마다 지금까지는 ‘괜찮아, 힘내자’하며 마음의 상처를 치유했겠지만 이제는 신체도 함께 달래줘야 하겠다. 연인에게 차이는 등의 예상치 못한 ‘사회적 거절’을 겪을 경우, 실제로 심박수가 느려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대학교와 레이덴대학교의 Bregtje Gunther Moor 교수팀이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실험을 실시했다.

연구팀은 실험자에게 ‘첫인상’에 대한 실험을 한다며 사진을 보낼 것을 요구했고 다른 대학교의 학생들로 하여금 참가자들 중 누구를 좋아하는지 선택하도록 시킬 것이라 말했다.

몇 주 후 참가자들을 불러 다른 대학교 학생의 사진을 보여주며 그가 자신을 좋아했을 것 같은지 추측하도록 했다. ‘좋아하지 않았을 것’ 혹은 ‘좋아했을 것’이라고 대답한 참가자 모두에게 ‘그는 당신을 좋아하지 않았다’라는 대답을 들려주었다. 그 결과, 좋아했을 것이라고 예상한 참가자들의 심박수가 그렇지 않은 참가자들의 심박수보다 극도로 더 느리게 뛰는 것을 발견했다.

이는 소화나 순환 등의 내장기관을 제어하는 자율신경계가 사회적 거절에도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연구팀은 “신체적인 고통과 사회적인 고통에 대한 인지는 뇌의 같은 구역에서 담당한다”며 “또한 기대하지 못한 사회적 거절은 말 그대로 ‘심장이 찢어지는 듯한 느낌(heartbreaking)’ 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 연구결과는 심리과학에 게재됐으며 미국 과학논문 소개사이트 유레칼러트가 28 일 보도했다.

-한희준 헬스조선에서 발췌-

연기적 사회, 집단적 사성제 중요: 자연의 사성제

사성제에서 고는 고통과 괴로움이고, 집은 고통과 괴로움의 원인(번뇌, 망집)이며, 멸은 고통과 괴로움의 원인을 없애고 열반에 이르는 것이며, 도는 고통의 원인을 없애고 열반에 이르는 수행방법이다. 이 수행방법이 팔정도이다. 사성제는 크게 인간중심적인 것과 자연중심적인 것으로 나눌 수 있다.

전자의 경우에 사성제의 뜻은 연기적 세상에서 팔정도를 수행하여 고에 따른 집착의 기름(원인)을 없애고 청정한 삶을 영위토록 하는 진리체계이다. 이러한 인간의 사성제는 다시 개인적 사성제와 집단적 사성제로 나눌 수 있다. 개인적 사성제는 개인의 성불이 중시되는 것으로 소승적이다.

그런데 인간은 사회적 동물로써 복잡한 연기관계를 이루므로 고와 집이 모두 인간집단 내에서 일어난다. 따라서 연기적 사회에서는 집단적 사성제가 더욱 중요하고 팔정도의 수행도 집단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그렇지 않고 고요한 산속에서 홀로 수행한 후 복잡한 세속에 다시 들어오면 오히려 자신이 특별하다는 증상만 생길 수 있다. 그러나 이런 비정상적 상태도 연기적 세계에서는 결코 오래 지속되지 못한다.

문수보살이 유마거사를 찾아와 거사의 병환은 어떠냐고 물었을 때 “일체 중생이 병이 들어 나도 병이 들었으니, 만일 일체 중생의 병이 없어진다면 내 병도 없어질 것이외다”라고 했다. 중생이 아프면 나도 아픈 것이 바로 대승적 보살정신이다. 따라서 대승불교에서는 반드시 대승적인 집단적 사성제를 따름이 마땅하다. 그렇다면 집단의 대승적 연기관계를 중시하는 한국불교에서도 이러한 집단적 사성제가 중시되어야 할 것이다.

대부분의 경전에서 언급되는 사성제는 주로 인간중심적이다.

그렇다면 인간은 어디에 발을 붙이고 살아가며 또 양식은 어디서 구하는가? 우리는 지구라는 천체에 살면서 공기로 호흡하고 물을 마시면서 살아간다. 그리고 태양빛에 의해 양육되는 양식을 먹고 산다. 뿐만 아니라 대기의 오존층이 태양빛의 강한 자외선을 막아주며 태양과 지구의 자기장이 세포를 파괴하는 강한 우주선의 유입을 막아준다. 이처럼 자연의 보호와 혜택 속에서 살아가는 인간이 어찌 자연과의 연기관계를 무시한 채 개체 성불만을 중시할 수 있겠는가.

자연의 사성제를 알아보기 위해서 별의 사성제를 살펴보자.

별이 살아가면서 먹는 음식 메뉴의 변화와 복사에너지의 전달에 따른 변화 등이 집에 해당하며, 이에 따라 고가 생긴다. 이때 고는 진화적 변화에 따라 생기는 불안정한 사건에 해당한다. 동일 사건이 계속 축적되면 기존의 질서가 사라지는 것이 멸이다. 그러면 양에 의한 질의 변화로 새로운 질서의 창출이 도이다. 결국 진화적 변화를 통해서 기존의 질서가 사라지고 새로운 질서가 창출되는 것이 별의 사성제이다. 별은 이런 사성제에 따라서 진화해 간다.

깨달음도 실은 이러한 사성제를 따른 질의 변화에 해당한다.

원래부터 아집과 법집이 없는 별은 불안정한 사건을 무위적으로 수용 적용하면서 자연의 이법을 따른다. 그러므로 별은 인간처럼 특별한 수행이 필요치 않다.

자연의 사성제는 인간을 포함한 자연 만물에 적용되는 근본적인 사성제로 볼 수 있다. 그런데 인간의 사성제에서는 인간과 자연 사이에 일어나는 연기관계가 거의 무시된다. 그 결과 인간의 편리함과 행복 추구를 위해서는 자연을 마음대로 이용하고 착취하며 파괴하는 것이 당연시 되고 있다.

실제로 이런 인간우월주의가 오늘날 지구의 위기를 야기했으며, 그 결과는 다시 인간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 연기의 근본은 자연 만물을 대상으로 함으로 우리는 만유를 내포하는 자연의 사성제를 따름이 마땅할 것이다.

-불교신문에서 발췌-

법회소식 NEWS

- 10 월 조지아주 부다나라 가을 야외 법회는 Fort Yargo State Park 에서 조지아주 애틀랜타에 계신 불자님들과 세인트루이스 부다나라 주지 선각 스님을 모시고 법회를 가집니다.
조지아주 애틀랜타 둘째주 일요일 10 월 10 일 애틀랜타 야외법회는 아주 큰 호수들과 아름다운 Trail 들과 보트선착장 까지 있어서 일요일 근교 나들이 장소로서는 최고로 꼽을 만한 Fort Yargo State Park 에서 야외 법회를 갖습니다.
이날 주요 일정은 11 시 법회, 12 시 점심공양, 1 시부터는 단체 놀이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Fort Yargo State Park 는 차 한대 당 5 불씩 주차료로 받기 때문에 일단 Duluth 제주 사우나 주차장에서 10 시 00 에 모여서 다함께 출발합니다.
Duluth 제주 사우나 가는 방법: (I-85 North 방향: Exit 104 에서 Pleasant Hill Rd 로 좌회전 한 뒤 Mall Blvd 로 우회전하셔서 들어가시면 왼쪽에 나옵니다.).
- 11 월 조지아주 부다나라 정기 법회는 부다나라 (불국사) 사찰이 조지아주에 창립될 때까지 매달 둘째주 일요일에 Pinckneyville Community Center 에서 조지아주 애틀랜타에 계신 불자님들과 세인트루이스 부다나라 주지 선각 스님을 모시고 정기 법회를 가집니다. 관심있는 분들과 뜻깊고 즐거운 시간을 함께 했으면 합니다.
법회장소는 Pinckneyville Park 에 있는 Pinckneyville Community Center, Room # 5 입니다. 조지아주 애틀랜타 정기법회는 매달 둘째주 일요일 오전 11 시부터 오후 1 시까지 입니다.
주소는 4650 Peachtree Industrial Boulevard, Norcross, GA 30071 입니다.
구글에 찍으면
4650 Peachtree Industrial Boulevard, Doraville, GA 30360 으로 나오는데 꼭 Norcross 로 오셔야 됩니다
- 11 월부터 애틀랜타 부다나라 정기 법회에서는 한국에서 가장 많이 독송하고 친숙한 경전중 하나인 “천수경”을 강의합니다. 애틀랜타 지역에 사시는 불자님들께서는 꼭 법회에 참석하시어 이번기회에 “천수경”을 다시한번 공부해보는 기회가 되셨으면 합니다.
- 세인트루이스 부다나라는 10 월 3 일 첫째주에 야외법회가 있습니다. Eckert’s Farm 에서 사과도 따고 회장님 댁에서 점심공양도 있습니다. 농장에는 어린이들을 위한 놀이동산도 있습니다. 가족들이 모두 참석해 주셔서 가을햇살을 만끽해 주셨으면 합니다. (일요정기법회 회원 및 토요 참선 정기법회 회원 모두 참석 합니다.)
- 9 월 21 일부터 9 월 25 일까지 시카고 소재 봉불사 주지 관호스님 과 한국 부산에 계시는 은사스님 및 두분의 비구니 스님들이 사찰을 방문하셔서 좋은 추억들을 많이 가지고 떠나셨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부다나라를 방문해주신 스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했습니다.
- 2011 년 달력불사를 받습니다. 조계종 출판사에서 달력 300 부를 프린트하는 비용 및 신도님 가정으로 발송비용 등 제반 총 비용이 약 \$1,000.00 정도가 소요 됩니다. 불자님들의 동참을 기다립니다.
2011 년 달력 불사 동참을 원하시는 불자님들은 미국 소재 부다나라 (불국사) 나 한국 부다나라 후원회로 연락 바랍니다.

2010 년 9 월 신규 인등 기도 동참자: 405 번 박수윤, 406 번 이창병, 407 번 병신생 강영순, 408 번 갑술생 이법학, 423 번 병진생 이창현, 424 번 계묘생 이연주, 425 번 갑진생 박영숙, 426 번 갑술생 이진희, 427 번 정축생 이재희, 428 번 경진생 이승희.

인등기도에 동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인등기도는 매달 첫째주 일요일에 있고 매달 동참비는 \$10.00 입니다. 인등 기도에 동참하신 불자님들은 꼭 법회에도 참석해 주십시오. 부득이한 사정으로 법회에 참석하지 못하시는 불자님들께서는 집에서라도 마음과 몸을 정갈하게 갖고 가정에서라도 꼭 기도에 임해 주셨으면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세상 사람들이 부처님을 모시는 가람을 지으면, 그가 후세에 태어나는 곳마다 지혜와 복덕이 구족하다고 하셨습니다.

동서를 막론하고 중생들은 사바세계가 혼탁하고 탁류가 거셀수록 부처님의 자비하신 참모습을 그리워하고 그 정신대로 살고자 더욱 간절한 원력을 세웁니다. 또한 물질과 마음의 정서가 어지러운 세상일수록 마음의 교양과 정신적인 지주 역할을 담당해 줄 곳을 찾기 마련입니다. 현재 미국에서 기하급수로 늘어나는 불교인구가 그것을 잘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다방면의 불교 포교를 위해서 법당과 선방 건립에 필요한 한 평 불사 인연에 불자님들을 초대합니다. 자비심이 지극하신 분들의 정성으로 이룩된 붓다나라 템플은 부처님의 뜻을 받들어 불국도에 한 걸음 더 가까이 가는 희망차고 기쁨에 찬 수행처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지은 이 인연공덕으로 불자님의 가정마다 부처님의 가피가 가득하여 자비의 문이 열리고 이 세계가 불국정토 되기를 합장 발원합니다. (부처님 불사는 \$10,000(일천만원)이고, 한 평 불사는 한 평에 \$1,080.00(백 팔만원)입니다.)
나무 석가 모니불, 나무 석가 모니불, 나무 시아본사 석가 모니불.

2011 년 달력 불사 필요예산 (\$1,000.00)동참: 성락 권혁만 \$200.00, 무량화 문봉순 \$100.00, 반야(Prajna) Greg Kilper \$100.00, 불국회 회장 자광 김용오 30 만원.

불사 동참을 원하시는 불자님들께서는 미국 부다나라 (불국사), 또는 한국 불국회 로 연락 주십시오.

Buddhanara Temple (불국사) 불자님들 주변의 소식을 접수 받습니다. 기쁜 일은 서로 나누면 배가 되고 슬픈일은 같이 나누면 반으로 된다는 부처님의 자비 사상에 입각해서 불국사 (Buddhanara Temple) 가족들의 경조사를 같이 나누었으면 합니다.

바쁘시더라도 매주 일요일 정기법회에는 꼭 참석하시어 항상 새로운 마음의 발심을 일으키는 좋은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 불 합 시 다.